

제3동아호 충돌사고 상황 점검 및 수색 강화 지시

- 해양수산부장관, 사고관할 구조기관을 찾아 실종자 신속 수색 강화 지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5일(목) 발생한 제3동아호(79.83톤, 서남해구 외끌이중형저인망, 선원 8명)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울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였다.

황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수색·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라며, “가족분들이 사고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수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 고 지시하였다.

또한 수색·구조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색구조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수색 활동을 전개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 (사고개요) '26.6.25(목), 시간 미상,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제3동아호(79.83톤, 승선원 8명)와 가스운반선간 충돌사고 발생
* 승선원 8명 중 6명 구조(사망 1), 2명 실종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호섭 (051-773-5527)
		담당자	사무관	이강은 (051-773-5526)